

땅값 분쟁에 터덕... 정부 무관심에 가시밭길

적조 '비상'

'10년 지지부진' J프로젝트 지구별 현황과 과제

구성지구 유일 착공·삼호 양도양수 협의 삼포 2 투자유치 중·부동지구 행정소송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이하 J프로젝트) 조성 사업이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간척지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내에서 간척지 개발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했고, 공적 개발 성격이 강했다.



반면 J프로젝트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간척지를 민간 기업이 사들여 건설하다 보니, 땅값 산정 과정이 길어지고 법정다툼마저 벌어진다.

기업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이곳도 감정평가 작업이 더더 지난 2월부터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땅값 산정 과정에 시간 지체=J프로젝트는 해남과 영암 일대 간척지를 구성지구(2,966만㎡), 삼호지구(8,666만㎡), 삼포지구(4,300만㎡), 부동지구(1,400만㎡)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2조 3700억원을 들여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영암군 삼호읍 일대 430만㎡(130만평)에 F1 경주장을 비롯해 1만명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레저스포츠도시를 조성하는 삼포지구도 1단계(F1경주장)는 준공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업체와 2단계 투자 유치를 맺은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착공한 구성지구와 영암서지 등이 들어선 삼포지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투자 유치 위한 추가 지원책 시급=정부는 기업도시의 건설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에 18층 기준으로 골프장 4.5개(81홀·321만1000㎡) 및 대규모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SPC 서남해안레저 간 땅값 감정평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J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업도시에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충주, 원주, 태안 등 전국 6개 지역에 기업도시를 계획했고 전남은 무안기업도시(무안)와 J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중 첫 삽을 뜬 기업도시는 롯데, 포스코 등 13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충주가 유일하다.

또 구성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만㎡(482만평)에 8950억원을 투자해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기능을 갖춘 자족형



14일 J프로젝트 구성지구 부지면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에서 흙을 싣고 다지는 기반 공사에 동원된 중장비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5월 기업도시 조성 과정에 개발 이익을 빼고 땅값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개정하고, J프로젝트에 투자 이민을 허용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도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일단 기업도시 지원책에도 성 과정에 개발 이익을 빼고 땅값을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개정하고, J프로젝트에 투자 이민을 허용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도시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가 향상할 경우, 법정 다툼에만 1년 3개월 이상이 더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정부가 간척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 땅값 지급을 약속하는 '이행보증보통증권' 제출을 면제해 준 것도 기업도시 건설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보증보통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부담했던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없애 준 셈이다.

또 지난 11일 썬카운터(주)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반려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개발 무산 위기에서 벗어난 부동지구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체부

J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2조1689억원, 고용유발 22만7435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솔라시도'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11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솔라시도-파인비치 오픈(KPGA) 골프대회'를 연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고흥 이어 여수해역까지 확산

고흥에 이어 여수해역까지 적조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앞당겨 관측된다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대규모 적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여수해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일 화정면 월호 해역, 월호 해역~남면 송고 해역 등 2~3곳에서 길이 500m, 폭 20~30m 규모의 적조피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코롤로디늄이 300개체 이상, 범위가 반경 2~5km에 달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적조때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롤로디늄균이 모인 것으로, 월호 해역은 m당 150~250개체, 월호~송고 해역은 20~30개체가 각각 검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더위로 수온이 상승하고 조류 소용이 활발해지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커질 수 있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조 발생 사실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지역 양식어가에 전파해 대처하도록 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관련 현장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선 지난달 26일 고흥 내나로도 동부해역에서 올 들어 첫 적조가 발견된데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고흥해역에서만 지난 1일까지 세차례 적조피가 관찰됐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는 7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남해안 일대에 적조가 발생해 남치와 전북 등 양식어류 568만마리가 폐사하고 44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은 코롤로디늄 밀도가 낮고 발생 범위가 작아 어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50여일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개발업자 제공모

전남 22개 시군의회의장들 "정부가 적극 지원" 건의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개발사업자 제공모에 들어갔다.

함대 등으로 매각 방식과 조건 등을 크게 완화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여수박람회 개최지의 존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단지 개발·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제안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의장들은 이날 여수지방해양관광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업 대상은 박람회장내 부지 25만㎡와 14만1000㎡의 건물 8채로, 사업제안서 제출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의장단은 "여수박람회가 폐막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사후활용보다는 민간매각과 정부 선투자금 회수 등에 몰두, 도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각방식과 관련, 일괄 매각이 곤란할 경우 단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제관과 빅오 시설을 제외한 부지 및 시설에 대해 구역별 분할매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사업자 선정 발표는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매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박람회 유치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박람회에 선투자한 3846억원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사후활용을 위한 투자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정신을 실천할 국책기관도 소속히 만들 것"을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업자 공모를 했으나 1개 업체만이 응찰하면서 사후활용 사업이 무산되자 제공모 하기로 했다. 당시 응찰업체가 1개사에 그친 이유로 국내 경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대규모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일괄매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제기되자 이번 공모에서는 구역별 분

▶작가 시정으로 15·16일 광일만 평·만화 습니다.

J프로젝트 새 브랜드 '솔라시도'

태양·바다·호수 의미 복합 기업도시

8월 '솔라시도 오픈' KPGA 골프대회

지난 2003년 프로젝트 구성 및 검토작업이 시작된 J프로젝트는 최근 '솔라시도'(SolaSeaDo)라는 브랜드로 개발되고 있다. 솔라시도는 '태양'(Solar), '바다'(Sea), '호수'(Lake)를 의미하며 복합 휴양·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상징한다.

생산유발 22조1689억원, 고용유발 22만7435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프로젝트는 그동안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5년 8월 제3차기업도시위원회에서 기업도시로 선정된 J프로젝트는 2008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돼 6

개 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송천·초송지구의 사업추진은 무산됐다. 또 지난 2010년 1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구성지구는 2년이 지난 2012년 11월에야 간척지 매입이 시작됐고, 오는 9월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09년 10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삼호지구는 현재까지 간척지 땅값

감정평가도 마치지 못하고 있고, 삼포지구는 지난 2011년 9월 영암서지를 완공한데 그쳤다. 행정소송 승소로 기자회견만 부동지구는 사업타당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09년 2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계획을 반려해 행정소송과 소송을

별이고 있다. 한편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솔라시도'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11일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솔라시도-파인비치 오픈(KPGA) 골프대회'를 연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41회 강진 청자 축제
The 41st Gangjin Celadon Festival
2013. 7.27. (토) ~ 8.4. 일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일원

http://gangjinfes.or.kr
1688-1305

제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3. 7.26 (금) ~ 8.1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물과 숲 - 休
강과 산, 바다와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청정 땅! 정남진 장흥!

www.jhwater.kr